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3. 10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TPP 참여문제 관련” (‘13.10.9, 경향신문 가판)

1. 기사내용

- ☐ “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, 한국정부가 TPP 관련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”는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정부는 TPP에 대한 방침을 정하거나 관심표명을 한 바 없으며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대해서도 별첨과 같이 보도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 장성길 과장(02-2110-4792)

(별첨) 니혼게이자이 신문 전달 내용

“TPP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아직 방침을 정한 바 없으며 이 점은 이미 발리 APEC 회의 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현지에서 “이번 APEC 기간 중 한국정부의 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은 없었다”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. 이를 참고하여 보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